

Maison Perrier-Jouet, Design Miami/ 2020에서 인간-자연 관계 표현

-- 디자인 스튜디오 mischer'traxler에 감각 체험 Curiosity Cloud 제작 의뢰

(파리 2020년 11월 27일 PRNewswire=연합뉴스) Maison Perrier-Jouet는 현대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국제적인 창의성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Design Miami/와 협력해왔다. 이 사명의 일환으로, Maison Perrier-Jouet는 신인과 기존 인재 모두에게 21세기라는 프리즘을 통해 예술과 자연과의 오랜 관계, 특히 아르누보 유산을 재해석할 것을 주문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821151-maison-perrier-jouet-design-miami-2020/>

Design Miami/ 2020을 위해 Maison Perrier-Jouet가 Katharina Mischer와 Thomas Traxler가 설립한 오스트리아 디자인 사무소와의 협력을 재논의하고 있다. Curiosity Cloud는 인간-자연 관계, 자연계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반추다. 염두에 둔 이 주제는 Maison Perrier-Jouet의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샴페인 명가 Maison Perrier-Jouet는 200년 동안 자연과의 공생을 진화시킨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포도 재배를 도모하고, 포도 재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야심 찬 신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Curiosity Cloud 상들리에는 빈에 위치한 유명 유리 제품 제조업체 Lobmeyr가 특별 제작한 세 가지 크기의 유리구 22개로 이뤄져 있다. 이들 유리구는 입으로 불어서 만든다. 각 유리구에는 미국에서 흔한 곤충 모형이 들어가 있다. 곤충 모형은 수공예로 제작한 것이며, 이는 Design Miami/ 2020의 미국 주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토종 곤충도 결국 수많은 침입종이다. 이는 세계 여행과 운송 같은 인간 활동이 야기한 자연과 생물다양성 변화를 보여준다.

멀리서 보면 유리구 안에 들어있는 곤충이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은은하게 빛나는 유리구 안에 들어있는 한두 마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호기심 많은 관객이 가까이 다가가면 더 많은 곤충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유리구 안에서 빙빙 돌고, 날개를 파닥거리 미묘한 음악적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전통적인 공예 기법과 더불어 기술을 사용한 결과, 관객을 끌어들이는 쌍방향 설치물을 만들고, 놀라움, 흥미 및 논의를 촉발할 수 있었다.

Curiosity Cloud는 아르누보의 핵심적인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곤충에 집중했다. 아르누보는 Maison Perrier-Jouet의 핵심이기도 하다. mischer'traxler는 특히 아무리 작고 하찮아도 자연의 각 요소가 이유와 목적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매료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협력 단계로 접어든 mischer'traxler와 Maison Perrier-Jouet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변혁적인 경험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재-매혹의 순간을 만들어냈다.

Curiosity Cloud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Design Miami/에서 전시된다.

문의: Sylvain BECKER - [sylvain.becker@pernod-ricard.com](mailto:sylvain.becker@pernod-ricard.com)

출처: Maison Perrier Jouet